

단 한 번뿐인 인생

윌리엄 맥도날드 지음
김 병희 옮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傳道出版社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1-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화: (031) 914-2732, 팩스: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Ilisan4-dong, Ilisan-gu, Koyang-shi,
Kyunggi-do, 411-828, KOREA

Only
One Time Around

by
William Mac Donald

Everyday Publications Inc.
421 Nugget Avenue, Unit 2
Scarborough, ON Canada M15 4L8

차 례

- 단 한 번뿐인 인생 / 7
나는 과연 우연의 산물인가? / 9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잠재력 / 10
당신의 삶은 한정되어 있다 / 12
현재란 영원을 위한 무대 연습이다 / 14
누군가가 보고 있다! / 15
자, 이제 살펴볼까요? / 18
필연적인 죽음 / 19
당신이 심는대로 당신이 거둔다 / 22
지옥이나, 천국이나? - 중간은 없다 / 23
죄값은 모두 치루어졌다 / 25
진실의 순간 / 27
이제 어디로? / 29
시간이 없다! / 30
더 이상... / 31
당신의 주인은? / 33
주님의 사랑으로 / 35
소유주가 아니라 경영자 / 36
하나님의 마음에는 / 37

차 례

-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다 / 38
주님의 지상(至上) 명령 / 41
재방영될 당신의 삶 / 42
잠깐만 숨 좀... / 43
계획A : 자기 마음대로 살기 / 46
황금사과 / 47
얼마나 가질까? / 52
우선 순위 / 56
대서특필된 사람들의 말로(末路) / 60
벽의 거울 / 63
인생을 즐겁게? / 66
내 가족만을 위해 / 68
어떠십니까? / 71
계획B : 세상의 흐름따라 / 72
계획C : 주님께 영광돌리기 / 74
최초의 포기 / 75
계속되는 재헌신 / 82
그 다음엔 무엇을? / 84
결단의 시간 / 86

단 한 번뿐인 인생

패트는 조금 전에 뉴욕에 도착해서 시가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흥기를 든 피한이 나타나서 협박을 했습니다.

“목숨을 내놓든지 돈을 내놓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패트는 대답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겠다. 돈은 내 노년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의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는 피한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패트의 생명은 그 순간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숙고해 봐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운명과 당신의 현재와 당신의 영원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그렇게 대수로운 인간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는 흥미가 없다고 할른지도 모르겠음

니다. 혹은 화제의 중심이 당신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신경을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신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이며 당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앞으로의 삶과 영원이 결정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무척 귀중합니다. 또한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똑같은 잎사귀는 결코 없으며, 눈송이나 모래알도 각각 다릅니다. 쌍둥이 형제라 할지라도 사실은 다르지요. 당신을 만든 틀은 한 번 사용된 후 영원히 버려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의 당신”은 절대 없으며, 당신은 단 하나 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당신 고유의 삶의 영역과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생을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돈과 같다.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단 한 번 쓸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숙고해야 할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일생을 가치있게 보낼 것인가?”

우리는 결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됩니다. “내 나이가 70인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해놓은 게 없어.”

우리는 생계를 위해 죽도록 수고만 하다가 무의미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만족과 성취감으로 뒤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인생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확신과 기대 속에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우연의 산물인가?

도대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광대무변한 우주 속의, 조그만 땅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지구 위에 서 있는 나는 정말 작기만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란 말입니까?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쩌다 생긴 우연의 산물이라면 생(生) 또한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 속의 아메바나 목장에서 풀을 계속 우물거리며 노니는 소 한마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점은 결국 무덤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면, 우리의 생은 고귀하고 숭고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에는 인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윌리엄 제임스의 말은 숙고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투자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잠재력

인간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서, 이것으로 선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악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때로는 무의미한 삶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노예 상태에 있는 자기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소아시아와 유럽에 전했

으며, 이것은 결국 온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링컨은 비록 통나무집에서 자란 촌뜨기에 불과했지만 수 백만명의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반면에, 로마 황제였던 폭군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온 몸에 타르를 칠한 후, 그들의 몸에 불을 질러서 정원 파티의 불을 밝혔습니다. 스탈린과 야만적인 그의 정권은 수 백만의 인명을 살해했으며, 굴락 군도에서 수 백만명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2천만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일로나 악한 일로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그저 일하고, 먹고, 마시고, TV나 보다가 일생을 마칩니다. 이 부류에는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생을 무의미하게 낭비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싸구려 선술집이나 여인숙같은 데를 전전하면서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술주정꾼, 또는 호색한에게 몸을 파는 흥등가의 창녀들...등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 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삶은 한정이 있다.

오래 살아보지 않고서도 우리는 인생이 매우 짧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생은 마치 풀과 같아서 심겨지고, 자라고, 베어지고, 바람에 불려 날아가 버리면 끝입니다. 인생은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손바닥 위를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함께 귀여운 여자 아기를 관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기는 햇살같이 보드라운 살결을 가지고 있으며, 엄마의 다정한 미소에 방글거리며 웃습니다. 그러다가 연분홍빛 옷에 파묻혀서 조용하게 잠이라도 들면, 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과 경이를 자아내게 합니다.

몇 년쯤 세월이 지나면, 이 아기는 어느덧 귀여운 계집아이가 되어 나비 리본과 주름잡힌 레이스로 자기를 예쁘게 장식합니다. 인형을 가지고 놀기도 하며, 소꿉장난도 하고 줄넘기놀이도 합니다.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집아이는 사춘기의 쾌활한 소녀가 되어 옷과 화장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며, 그녀의 첫 데이트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 그녀는 어느덧 결혼을 하여 평온을 찾은 아기 엄마가 됩니다.

조금 더 있으면 그녀는 인생의 오랜 경험으로 얻은 풍부한 지혜와 조용한 성품을 지닌 성숙한 중년 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기옷 속에 파묻혀 귀여운 손을 꿈틀거리는 남자 아기는 어떻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조그만 사내가 되면, 때로는 부모의 속을 뒤집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암전히 있기도 합니다. 주머니 속에 지렁이나 개구리, 못, 돌조각 같은 것을 가득 담아가지고 다니며 장난도 칩니다. 꼬마 자전거를 처음으로 타는 날이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지고, 부딪치고, 구르고 아담이 납니다. 그는 실로 개구장이입니다. 그러나 세상모르게 잠들어있는 모습은 작은 천사입니다.

십대 소년이 되면, 친구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쫓아다니고, 옷과 외모에도 신경을 씁니다. 때로는 대담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감이 넘칠 때도 있고, 때로는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상적일 때도 있고, 때로는 굳은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면, 그는 이 어려운 물가고 시대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업 전선에서 고전분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24시간뿐인 하루를 30시간으로 늘여서 써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는 어느덧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는 이제 자신의 몸 하나도 주체하지 못하는 노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도 왕년엔 저랬지!”

84세 된 어느 미술평론가는 자신을 묘사하기를, 자기는 어느 거리 모퉁이에 서서 모자를 벗어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않는 잠깐의 시간”을 떨어뜨려 달라고 구걸하는 거지와 같다고 표현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이같이 무상한 것이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현재란 영원을 위한 무대 연습이다.

모든 사람은 조만간에 닥쳐올 “영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깐만 지나면 우리의 생애는 끝나고, “영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영원”은 사람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생입니다. 그것은 한없는 시간입니다. 만일 모래 한 알을 일년으로

친다면 지구상의 모든 모래는 얼마나 오랜 세월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영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끝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 영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선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은 영원히 계속되는 연극의 한 단막에 불과합니다. 이 생이 전부인 양 사는 것은 순간을 영원과 바꾸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

“영원”은 사람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과연 존재하시는가? 만일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과 진리가 한량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사람의 양심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모든 발명품에는 발명자가 있고, 모든 설계도에는 설계자가 있듯이 피조물에는 반드시 창조주가 계십니다. 우리는 망원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질서와 광대함을 바라봅니다. 또 현미경으로는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현미경 세계의 복잡미묘함과 질서의 경이를 관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느껴 알며,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감시장치가 있어서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사람이 혹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고 무시할지라도 양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쩐지 양심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것을 싫어하여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해 버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

며, 의로우시며,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또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무궁하신 분임을 배웁니다. 우리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시며, 속량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을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 광장에는 큰 기둥이 서 있는데, 그 기둥 맨 꼭대기에는 넬슨 경의 동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상이 너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영국에서 큰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을 때, 당국에서는 한 조각가를 임명하여 넬슨 경의 모조 동상을 만들어서 아주 낮게 설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사람들이 넬슨 경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조만간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의 만남은 과연 어떠한 것이 될까요? 그 때

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살펴볼까요?

조금만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아해 할 것입니다. 죄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외설적인 것들을 TV 화면에서나 벽의 낙서같은 데에서도 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자동차의 밤바에도 외설적인 그림을 붙이고 다닙니다. 도처에는 난잡한 성적 죄악과 술주정, 절도와 살인, 매수와 부당이득 등 그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더러운 욕설, 추잡한 음담패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천진하게만 보이는 아기에게서조차 이기심과 앙탈, 토라짐과 같은 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분이 나쁜 것은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들 자신의 생각에, 말에, 행동에, 습관에, 지독한 자기중심적 자아에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저질렀던 그 어떤 행위보다도 훨씬 더 악한 생각들이 가득히 자리잡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죄는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었던 말인가? 어떻게 그것에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음 세상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철학들은 필히 “죄”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제공해야만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필연적인 죽음

죽음이란 생명의 능금을 먹어들어가는 벌레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희망과 야망과 꿈과 기쁨과 쾌락을 앗아가는 아주 불쾌한 것입니다.

증권시장에서 부자가 되려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증권으로 돈만 벌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갖게 된다고 말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날로부터 앞으로 일 년간 증권신문을 구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의 생각은 신문을 통해 일 년 동안 시세가 가장 오를 걸로 예상되는 증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 사람은 신문을 받아들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지 추정하는 기사를 읽으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눈이 사망자 예상 명단에 머물렀을 때 자신의 이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영구차에서, 초상집에서, 수많은 무덤에서 죽음의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것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잊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겠지요. 그러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일본에서 “4(四)”자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호텔같은 곳에서는 “4층”이라는 표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3층 위에는 4층이 엄연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곧장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사실을 못볼지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우리의 눈은 크게 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과의 피할 수 없는 만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영원(永遠)을 생각하기에는



저는
너무 어려서...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니죠



자신이
만만
합니다



매우 행복해요
시간도
아직 있구요



눈코 뜰새 없이
바빠서...



걱정이
태산 같아서요



너무 뉘어서...
마음은
점점 완고해 가고



영 원

벌써...
너무
늦었군요

당신이 심는대로 당신이 거둔다.

성경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름다운 의복이나 제물, 사회적인 신분이나 명성, 위신이나 체면 따위는 그 날에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빛 가운데로 이끌려 나올 것입니다. 마음 속에 악하고 은밀한 생각과 동기, 좋지 못한 말, 멋대로 한 행동...

하나님의 엑스 광선이 안팎을 두루 살필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심판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명하고 있으며, 공의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행 17 : 31)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은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이나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염려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심판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거나 가볍게 다루실 수가 없습니다. 죄값은 치루어져야 하고, 죄에 대한 벌은 받아야만 하며, 판결문의 형기는 마쳐져야 합니다.

공의가 심판을 요구합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죄값이 치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는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으며, 도망간 사람의 부채는 갚아지지 않고 있으며, 불법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에게 곧 임할 두려운 심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심판 자리에서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면제해 주고, 변호해 줄 합당한 변호사를 찾아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일에 실패한다면 당신은 다음의 두려운 사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 “지옥”.

지옥이냐, 천국이냐? - 중간은 없다.

“지옥”이란 주제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다루고 싶지 않은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존재를 차라리 믿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주적인 구원” 즉, 모든 사람과 마귀까지도 결국에 가서는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

는 사상을 믿는 것이 더 마음 편한 일입니다. 혹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두 번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이 죽게 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원히 멸절되기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옥의 존재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에나 가라”고 욕하는 것은 이상스럽습니다. 그곳은 과연 상상만의 세계이겠습니까? 지옥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가 말한대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 또는 회개한 강도와 회개치 아니한 강도, 성도와 죄악을 사랑하는 악인들이 동시에 함께 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반증은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지옥을 영원히 존속시키시겠습니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과 그 부하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하여 마귀를 추종함으로써 말미암아 인간들도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게도 아무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하여 엄청난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벌써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고의적으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사려깊은 사람이라면 이 중대한 사실을 심사숙고해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세상이 당신의 유일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죄값은 모두 치루어졌다!

이제 우리는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갈보리입니다. 사람이 만일 이 갈보리의 역사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그걸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곳은 바로 창조주께서 그의 피조물을 위해 죽으신 곳입니다. 죄라곤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 투성이인 사람의 아들들을 위해 죽으신 곳입니다. 선한 목자되신 주님께서 잃어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2천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후, 3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 메시아로서 공적(公的)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관원들과 백성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배반당하고 체포된 후, 날조된 죄목으로 심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난 군중들에게 주님을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못 박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의 의미는 보통 사람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치뤄야할 죄의 형벌을 대신 치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장사지낸지 삼일 후에,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지옥과 마귀 사단에 대해 완전히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마련되었으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를 슬쩍 눈감아 주시지 않고서도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그 몸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은 받아들여져야 하며, 용서는 수락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소유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사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셨지만,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순간

당신은 이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을 참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참으로 더러운 죄인이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크 트웨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국은 은총으로 간다. 만일 공로를 쌓아야만 가는 곳이라면, 당신은 쫓겨나고 당신의 개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죄를 지독히 혐오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둘째로, 당신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일체의 노력을 포기해야 하며, 구원받는 일에 자신의 선행이나 좋은 성품 따위를 덧붙이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다만, “저는 하나님께 아무 것도 드릴 것이 없는 무익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태도로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겨 버리십시오.

셋째로, 당신은 주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 죽으셨으며, 그때 흘리신 보혈로 당신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실은 당신이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데, 주님께서 당신 대신 죽어 주셨음을 확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믿음의 분명한 증거로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곧, 당신을 죄악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마침내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은 오로지 예수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통제권을 참으로 온

전한 주인되신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했을 때 당신은, 자신의 모든 죄가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함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영생을 가졌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당신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이와 같은 축복을 체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시길 바랍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두려워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안되는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디로?

만일 당신이 변화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 장(章)은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는 국면(局面)입니다. 당신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용감히 대면해 왔으며, 그것들에 대해 지성적으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대면해야 할 사실, 붙잡고 씨름해야 할 문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다!

구원에 관한 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간이라는 노인이 뼈만 앙상한 손가락을 당신의 코끝에 갖다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짧단 말이야. 자네는 그것을 최대로 활용해야 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반향(反響)입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 9 : 4).

귀히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은 항상 긴박감 속에 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창 24 : 33)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미 칼마이클(Amy Carmichael)은 “저에게는 하나님과 서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치고 결산을 하기 전까지는 그림자를 가지고 놀거나 곧 시들어버릴

땅위의 꽃들을 뽑고 있을 틈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열 두 시간뿐이라니... 선한 목자여!
결코 긴박감이 스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산 위의 동리를 비추기를 원하나다.

일본에 있는 어느 자동차 제조회사는 다음과 같은 선전문구를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몰리고 있습니다!”(We are driven!)

그리스도인은 다른 견지에서 볼 때,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지만 시간은 너무 짧다는 긴박감으로 늘 몰려야 합니다.

더 이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또 다른 사항은 구속(救贖)의 진리입니다.(우리말 성경에서 구속, 대속 속량으로 번역된 redemption의 원래의 의미는 “몸값을 주고 노예 따위를 되사서 풀어주다”입니다 — 역자 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 그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 한 가지는, “그가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죄의 노예시장에

서 값을 치루시고 그를 사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방황함으로써 어둠 속에 있는 사단의 왕국의 시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왕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우리는 이제 다시 주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때 치르신 값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금액이며, 형언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것처럼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 진리는 C. T. 스테드(C. T. Studd)를 크게 도전하여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구속이란 말이 “다시 사다”라는 뜻이고, 따라서 제가 주님께 속했다면, 저는 제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도둑놈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저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고전 6 : 19~20). 우리는 이와 같은 진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것이 아닌 목숨과 삶을 계속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구속하신 분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께 넘겨 드려야 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가 유행할 때, 남자들은 “시저는 주님이시다!”라는 맹세를 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만일 거절하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와 같은 신성모독에 찬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으며, 그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지상의 통치자들이 그 당시처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됨심을 알아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롬 14 : 9). 또한 주님은 스스로가 만유의 주 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실제로는 주님께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입으로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은 하지만, 그에게 주님으로서의 권리를 드리는 것은 거절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아무 조건없이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존 스토티(John Stott)는 영국 여왕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할 때의 장면을 묘사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들 중의 하나는 대관식이 행해지기 바로 직전, 즉 여왕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는 성당 안에서 동, 서, 남, 북 각 방향의 청중들을 향하여 네 번 소리를 지릅니다. 「귀빈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는 영국 여왕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대주교가 물을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성당 안에 모인 청중들이 큰 소리로 승인의 대답을 네 번 해야만 비로소 왕관이 여왕의 머리에 씌워집니다.”

스토티씨는 말을 계속 잇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림없는 만왕의 왕시요, 만주의 주 이심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분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이
필히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승인의 외침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 새로
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또
다른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위
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와 같은 죄인
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 전부터 지고한 천국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던 분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당신을 구속(救贖)
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내어 주실 정도로 당
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분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실까요? 당신
에게 그만한 장점이 있어서일까요? 당신에겐 그분의 사
랑을 받을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당신은 그
분의 원수였으며 따라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바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분의 본성입니다

다. 그리고 사랑은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허물과 죄로 죽은 몸이었지만,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으며,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하지 못합니다.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지구 위의 모든 바다를 잉크로 삼고, 하늘을 거대한 종이로, 모든 풀잎사귀를 펜으로 삼은 후, 모든 사람이 훌륭한 작가가 되어 하나님을 묘사하려 한다면, 초반에 벌써 잉크와 종이가 다 닳아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시 물겠습니다. 당신이 옛날에 살았던 이기적이고 죄악된 삶을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결정하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진리가 당신에게 해당되는지요?

소유자가 아니라 경영자

제 말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우리가 씌름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청지기 직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시간, 재물, 재능...)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돈이나 재능, 집, 자동차, 가족 등등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나 우리 자신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청지기 직분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펼쳐질 장부는, 우리의 달란트가 무가치한 세상에다 창부처럼 몸을 팔았는지, 우리의 돈이 자신의 방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다 보여줄 것입니다. 그 펼쳐진 책에는 또한,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나라에 관계없는 하찮은 활동에다 소모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회한한 미술적 연금술을 통해 모두가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회계장부는 우리의 모든 삶과 봉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의 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데에 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 모든 사람의 영혼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은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들을 그와 함께 누리기를 원할 것이며, 그가 성경을 갖도록, 구원받도록,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있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할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물질은 사람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보다 사람의 영혼에 대해 더 큰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치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만 하며, 사람의 영혼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조용히 있을 때가 아니다!

자신의 불치의 암이 어떤 방법을 통해 고침을 받았으면서도 그 방법을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로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죄의 병이 고침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다른 잃어진 영혼들에게 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더욱 악한 일입니다.

롱 아일랜드에서는 어떤 승객이 기차를 타고 기차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눈먼 사람을 누구든지 아신다면, 블럼 의사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나는 전에 소경이었는데 그가 나를 이렇게 고쳐 주셨답니다!”

저는 해군에서 복무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해군 비행장 안에 있는 식당으로 식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때 거기에는 단 한 사람의 조종사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맥 네이브였습니다. 그는 스테이크를 시켜 먹으면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스테이크를 주문한 후, 신문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전도하라는 충동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변명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신문을 읽는 중이니까 방해받을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요. 제가 주문한 스테이크가 나온 후에도 전도하라는 충동을 또 한번 강하게 받았지만, 그 때는 제가 음식을 먹고 있었고, 신문을 읽는 중이었기 때문에 또 거절을 했습니다.

그날 밤 맥과 동료 조종사는 서해안으로 수송비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리조나의 플렉스탑에 내렸다가 다시 이륙했는데, 잠시 후에 그 비행기는 사라져 버렸습니

다. 수색대가 보내졌지만 DC-3 비행기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 주일이 지나고, 몇달이 지났지만 그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1943년의 봄에, 보이 스카우트 단원 몇명이 플렉스탭 밖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산을 등산하다가 비행기의 꼬리가 눈속에 처박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당국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맥 네이브와 동료 조종사의 부스러진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당신은 그 사건이 세계 얼마나 쓰라린 상처를 주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한 영혼이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 후 얼마 안되어 저는 갑판 위를 지나다가 갑판 위에 방수로가 펼쳐져 있고, 두 명의 장교가 사망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보내주기 위해 맥과 동료 조종사의 소지품을 검사하며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제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때 큰 부끄러움과 후회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저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비난의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너는 나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았어!”라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되거나 앓을 까라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못지 않게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것은 우

리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없어서는 안될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자기의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둬야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9:60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신은 빛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회가 있는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4명의 굶어 죽어가던 문둥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가운데에 갑자기 처하게 된 자신들을 발견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둥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어서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별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왕하 7:9). 그리고 그들은 가서 자기 동포들에게 음식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의 지상(至上) 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 : 19~20).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단 하나의 문제는, “나는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의 삶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당신 스스로 이렇게 자문(自問)해 보십시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재방영될 당신의 삶

우리가 당면해야 할 마지막 문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곳은 성도들의 모든 삶이 평가를 받는 장소입니다. 그때는 검토와 상급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그 심판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치루셨으므로

하나님께서서는 더 이상 두 번의 형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한 일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상급을 받든지 큰 손실을 입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재판관이 범법자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법정과 같지는 않지만, 그것은 오히려 화초 품평회와 같아서 심사원이 일등상, 이등상, 입상 등의 상장을 수여하는 곳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에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주지 않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선한 소원을 일으키며, 우리가 영원을 위해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백년이 지난 후에 지금의 당신과 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안개 낀 흑암의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X-광선보다도 더 우리의 동기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빛나는 빛의 세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계시의 잡지에서).

잠깐만 숨 좀...

이제 잠깐 한 숨 돌리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사항들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전 생애와 영원에 관계되는 심각한 사실들과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어 왔읍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은 너무나 짧으며, 손살같이 달아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이 의미를 지니도록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우리의 지배권을 넘겨드려야 한다.

우리는 청지기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므로, 각자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업을 번창시켜서 주님께 영광돌리도록 충성스런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돌아보아야 하며, 귀한 영혼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세상 일에만 얽매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만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진 자이다.

주님의 지상 명령은 분명한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자

너는 선교사이거나 또는 그 일에 여러모로 기여해야 한다. 예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셨다.

잠시 후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따라서 참으로 가치있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한다.

이상의 사실들이 우리가 살펴본 것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내가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재량을 따라 하고 싶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고, 둘째로는 세상의 조류(潮流)를 따라서 되어가는 대로 적당히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으며, 셋째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우리를 쓰시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은 과연 어느 쪽을 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획 A : 자기 마음대로 살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가장 흔한 반응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대로 계획하는 것일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관하여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웅대한 야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

엇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야망에 부합하는 결의를 계속 굳게 다져가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황금 사과

그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재물을 손에 쥐고 싶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그의 삶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그가 만일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소유하게 된다면 행복해지겠지요. 그러나 그는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라는 로마의 격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일으키지요.

그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전기가 통하고 있는 줄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일단 쥐면 놓기가 힘들어지지요.

그는 또한 신약성경이 부의 축적에 대해 결코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부러 잊으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이며, 탐욕은 우상숭배이며,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그리스 신화에는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황금 미끼에 걸려들어 결혼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탈란타는 어떤 남자이든지 도보경주에서 자기를 이기기만 하면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남자가 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히포메네스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프로디테로부터 세 개의 황금사과를 받습니다. 경기 도중에 그는 적당한 간격으로 그 사과들을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아탈란타는 그것을 줍느냐 뒤처지게 되고 결국 경기에 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도 영적 부요가 참된 부요란 걸 쉽게 잊어버리고 황금사과의 유혹에 말려들 위험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는 해럴드 와일디쉬가 쓴 “골짜기에서 제일 가는 부자”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부자 한 사람이 언덕 위의 궁전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여러 개의 농장으로 나뉘어진 푸릇 푸릇한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가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내꺼야!” 그는 돈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뭐든지 가지고 있었지만, 혼자 쓸쓸히 살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도 없으며, 성경을 읽거나 지역교회를 방문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관리자 한 사람을 두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관리자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조그만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정에는 기쁨과 화평이 늘 넘쳤으며, 모든 사람은 존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다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그의 목소리를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부자집의 현관 벨이 울려서, 부자가 이 이른 아침에 누가 찾아왔을까 의아하게 여기며 나가 보았을 때, 문 밖에는 존이 온순한 얼굴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말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존?”

“아닙니다. 주인님. 하지만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왔는데요.”

“그래?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오게.”

두 사람은 호화로운 양탄자가 깔린 응접실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젯밤에 너무나 선명한 꿈을 꾸어서 그것을 주인님께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말해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밤 자정이 되면 이 골짜기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지 주인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 뿐이었어요.”

“걱정말게 존, 나는 팬찮아. 하여간 나는 꿈따윈 믿질 않는단 말이야.”

존은 미안한 표정으로 그곳을 물러나 일하러 갔습니다. 부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

“그 따위 꿈을 믿다니! 가련한 친구같으니라구… 나는 이렇게도 건강한데 말이야.”

오전 10시쯤 되자 부자는 차를 몰아 시내에 있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그를 종합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건강이 아주 좋으시군요. 앞으로 20년은 끄떡없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 의사 선생님, 오늘 저녁에 제 집에 오셔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식사 후에 불 옆에 앉아 푸근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녁 7시쯤에 오십시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하루 종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 보았지만 쏘니 한 말이 생각나서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오늘밤 자정에 죽게된다!” 저녁 7시쯤 되어 의사가 왔을 때 그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치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술이 거나하게 취한 채 불 옆에 앉아서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의사가 돌아가려 했지만 부자는 12시까지만 있어 달라고 그를 못가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쏘니 불길한 말을 해주던 양탄자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자정을 넘어갔

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돌아갔고, 부자는 “어리석은 친구같으니…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라고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시 30분이 되자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의사가 무엇을 두고 간 게로군」하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어 보니 거기에는 웬 소녀가 머릿수건을 쓴 채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소녀는 흐느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의 아빠가 오늘밤 자정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저씨한테 알려드리라고 저를 보내셨어요.”

“뭐라고! 존이? 원 이걸 어찌나! 엄마한테 가서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너의 집에 간다고 말씀드려라.”

흐느끼던 소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그는 천천히 문을 닫고 양탄자 위에 섰습니다. 그 때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은 믿음과 사랑과 평안으로 부요했던 존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이 골짜기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돈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묘비에 돈 모양

의 그림을 새겨넣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허욕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나 다윗의 별같은 상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돈도 함께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며, 장례 행렬에는 무장한 경호차도 볼 수 없습니다.

눈 앞에 동전 하나를 놓으면 태양이 가리어지는 것같이 영혼의 눈 앞에 돈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가리어집니다. 돈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며, 그 마음에 악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질까?

당신의 삶의 목표 중 또 다른 하나는 꼭 돈이 아니라도 다른 형태의 재물인 온갖 종류의 물질을 소유하려는 욕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의 골짜기에 있는 호화로운 집에 살고 싶어합니다.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모터-보트도 있으며, 이동식 주택(mobile home) 값비싼 예술품, 골동품, 기계설비, 보석, 가축, 호화 가구, 운동기구로 가득 찬 차고, 여러 종류의 자동차 등등이 다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토지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가졌던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

쉬카 사람들로부터 땅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000루블만 내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가 걸어다니는 모든 땅은 그의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부지런히 걸어다녔습니다. 한참 가다가 아주 비옥하게 보이는 장소에 가서는 그것도 소유하고 싶어서 그 장소 주위를 멀리 돌았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그는 너무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깨닫고 출발점을 향해 급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질 때쯤에 간신히 출발점에 도착한 그는 숨이 몹시 차고 기진해서 픽 쓰러진 후 죽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위 사람들은 어느 조그만 땅에다 그를 묻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시체가 누울 조그만 땅뿐이었습니다.

E. 스탠리. 존스(E. Stanley Jones)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집을 원하면 하인들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집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가 만일 캐딜락 차를 원하면 운전수도 포함해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기양양했지만 이내 싫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지겨운 곳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다. 이곳에 있기보다도 차라리 지옥에 있는 편이

났겠다.”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냉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의 지옥에 살면서 싫증과 불안과 불만족과 불행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하디는 자신을 묘사하기를, 자신은 공동묘지를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자기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무덤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듣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가족들을 더 자랑으로 여겼던 남자가 누워 있으며, 지금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줄도 모르고 죽기 전에 그렇게 소중한 여기던 청색 도자기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던 여인도 누워 있습니다.

미네소타에 살고 있던 한 부유한 여인은 어느 날 저택의 창을 통해 저 멀리 초원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의 방향을 점검한 후 자기 집 방향과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려니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녀의 집쪽으로 초원의 불길이 번져가는 것이었음

니다. 그녀는 가장 값진 재물을 챙겨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방 저방으로 허겁지겁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으로 들어가서 값진 물건을 팔에 가득 안았다가 다른 방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버리고 다른 재물을 품에 안고, 또 다른 방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품에 안고 하는 일을 불길히 집까지 덮쳐서 피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집을 빠져나올 때 양 손에 든 것이라고는 시어빠진 우유 한통과 잘 우려먹은 햄본(음식물의 일종) 하나가 고작이었습니다.

사무엘 존슨(Samuel Johnson)이 넓고 훌륭한 정원과 토지를 한 바퀴 시찰하고 나서 풍자적으로 한 말은 이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죽지 못할 것!”

재물만을 축적하기 위해 사는 삶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찾은 사람들의 다음과 같은 간증을 들어 보십시오.

윌리엄 C. 번즈(William C. Burns) :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적게 원하는데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일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 가지고 있다면 고통과 슬픔은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David livingstone) : “저는 제가 소유한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한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업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만 한다면, 현재와 영원에 있어서 저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데에 소용되기만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거나 지키거나 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의 온 관심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월치만 니(Watchman Nee) : “저는 저를 위해서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원합니다.”

A. W. 토저(A. W. Tozer) : “아무 것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말콤 머거릿쥐(Malcom Muggeridge) : “뒤를 돌아볼 때 제게 있어서 행복했던 순간은 검소한 내핍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놓인 조그맣고 하얀 방, 푸른 잎사귀가 달린 열매와 쌀, 건초 헛간이나 텐트... 이러한 환경은 지금도 황홀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우선 순위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슬프게도 직업을 제일 우위에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좌 위에 그리스도 대신 회사를 올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지 않을 일도 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들은 고자격자를 뽑기 위해 높은 지위와 많은 봉급을 보장하는 등 온갖 미끼를 던집니다. 하지만 일단 입사한 후엔 그 사람의 시간과 삶을 할 수만 있으면 회사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사측에서 그 사원의 최후 헌신까지 뽑아내고 나면 그 다음엔 황금빛나는 악수를 그와 나눈 후 그를 쓰레기 더미로 추방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기업의 하위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직업을 위해 탄생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식료품 상점 주인으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전 선교사 수양회에서 빌리 그래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 정치가인 존 모트(John Mott)는 캘빈 쿨리취로부터 대사의 자격으로 일본에 보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총재님, 저는 주님의 대사가 되기 위해 학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래로 아직까지 한 번도 다른 부름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극동지역에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어떤 적당한 사람을 만나 극동지역 대표로서 일해준다면 1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그럼 2만 5천 달러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또 거절했습니다. 그럼 5만 달러 주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제안하는 급료에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제안하는 직업은 하잘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가슴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J. 시들로우. 백스터(J. Sidlow Baxter)가 말하는 어떤 사람은 방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밀어내 버렸읍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공은 거두었지만, 죽어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미친듯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저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지만... 공장 소리 때문에 잘 안들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하겠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어떤 분에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인가?”라는 인상을 심어주지는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물론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마땅히 일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는 직업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첫째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이 둘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어느 유명한 유전학자들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실파리를 연구하는 과학자 중의 한 사람이 최근에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공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발표를 듣고난 동료 과학자 한 명이 유감스러운 표정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쫓쫓, 과실파리를 쫓고 하나님을 따라가다니...”

직업과 천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천직 혹은 소명은 이 땅위의 그리스도의 사업을 맡아서 증진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우리가 쓸 비용을 지불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또한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막 만드는 일이 그의 부르심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과 동역자들의 빵과 버터를 마련하기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책상이나 작업대는 주님께 의해 변화된 삶과 입술을 동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좋은 설교단이 됩니다. 근면과 정직과 주님을

많은 인격으로 우리는 복음에 따르는 생활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업은 또한 희생적인 헌금을 통해 전세계의 주님의 일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요컨대, 직업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그리스도인은 회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대서특필된 사람들의 말로(末路)

세상에는 또한 돈과 재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 땅의 명성과 존경을 인생의 큰 목표로서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림자를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일을 잠깐 멈추고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얼마나 빨리 잊혀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증조부모님의 이름을 모르며, 사실은 조부모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 명 정도의 미국 부통령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세상의 명예란 게 도대체 뭐니까?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훈장이나 값싼 트로피, 상장같은 것을 얻습니다. 몇년만 지나면 이것들은 낡아빠지고 퇴색해져서 다락 속에 처박혔다가 결국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집니다.

나폴레옹은 그의 손에 훈장 한 응큼을 쥐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로라면 나는 왕국이라도 짓겠다.”

마이클 그리피쓰(Michael Gribbiths)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연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 보상이나 성공, 몇 장의 졸업증명서, 운동 경기에서 탄 몇 개의 우승컵이나 메달, 자신에 관한 기사를 올려놓은 신문지 조각, 그리고 승진하여 자신의 이름이 지역사회에서 좀 알려지고나면 기념시계 하나받고 퇴직, 좀 있으면 부고장, 꽤 많이 참석한 장례식...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까?”

루디아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이 맥길 대학교의 졸업식장에서, 졸업생들에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너무 추구하지 말라고 충고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언젠가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 한 분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때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레디 프린즈(Freddie Prinze)는 이 세상의 명예와 명성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겨우 22살이 되었을 때 벌써 그는 성공의 지름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77년의 대통령 취임 축제에서 공연을 할 정도로 연예계의

정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극배우는 자신의 삶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 한 사람은 말하기를, “프레디에게는 아무 것도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이것이 바로 그거야? 이것이 바로 전부란 말인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참으로 침울해지고 풀이 죽은 그는 자동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대고 발사해 버렸습니다. 경찰은 그로부터 입수한 종이조각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노라고 적힌 글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빠른 성공에 빠른 종말” 이었습니다.

하워드 휴즈(Howard Hughes)는 일생일대의 명성과 인기를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으며 능력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성 시대에는 전형적인 미국의 영웅이었으며 용감한 조종사였으며, 지칠 줄 모르는 연구가요,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거대한 방위산업회사(휴즈 항공회사)와 간선 항공회사(TWA) 및 수많은 계열회사를 소유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약 23억 달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가서는, “빛도 없고 기쁨도 없고, 반미치광이였으며… 자신의 병적인 공포와 허약함에 둘러싸여 사실상 죄수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 격렬한 흥분이 일단 가라앉으면, 그는 자신의 외모와 건강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애처로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타임지에서).

어느 전기(傳記) 작가는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는 마치 고문에 짓이겨진 사람같이 되어 자아 부정(自我否定)의 늪에서 허위적거렸으며, 아무런 기쁨이나 위안이 없이 감옥같은 생활 속에서 거의 미치광이 상태로 빠져들어 갔다.”

그는 마약에 중독되었으며, 그의 외모는 끔찍하게 변했습니다. 그 신선놀음을 하던 억만장자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놓고 1976년 4월 5일에 죽었습니다.

수 년이 지난 후에 만약 어떤 사람이 프레디 프린즈나 하워드 휴즈의 이름을 들먹인다면, 젊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죠?”라고 물을 것입니다. 지상의 명성과 명예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결국 큰 실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벽의 거울

계획 A의 또 하나의 모습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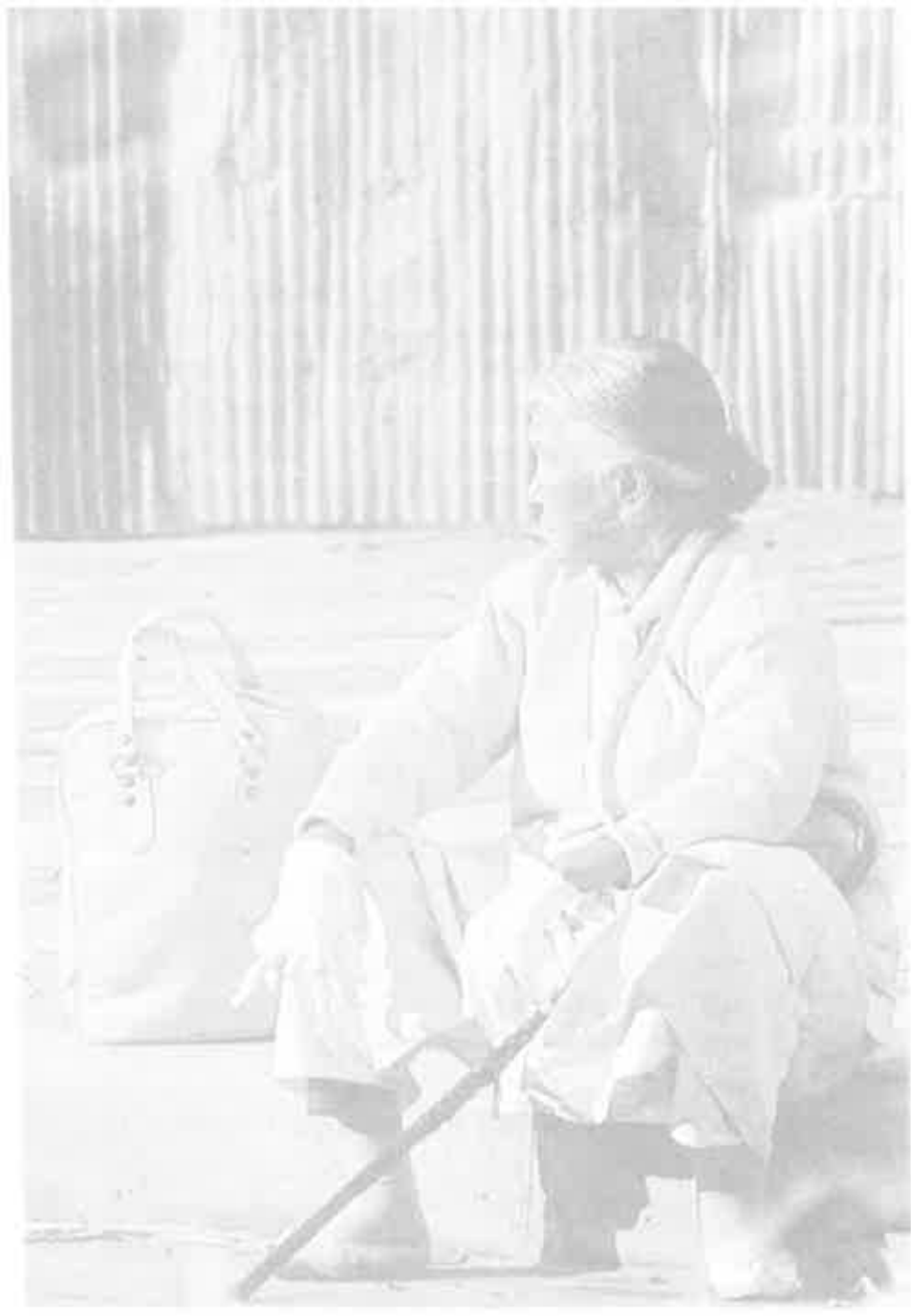
예를 들어 주로 미장원에서 사는 어떤 여성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녀는 아이새도우를 하고, 속눈썹과 눈썹

을 단장하고, 머리를 염색하고, 얼굴 마사아지를 하고, 향수에 피부용 연고와 크림을 바르는 등, 온갖 것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그녀의 일과입니다. 화장대는 그녀의 제단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제목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처음 쳐다보았을 땐, 아름다운 여성이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에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로 쳐다보았을 땐 거기에는 추한 해골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와 같이 세월이 좀 흐르면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을 육체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성들에게서도 역시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을 가정해 봅시다. 그는 육체미클럽에 가입해서 자신의 육체를 멋지게 단련합니다. 그는 또한 비싼 값을 주고 머리를 꾸미며,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 많은 돈을 들입니다. 그는 단추를 채우지 않은 셔츠 사이로 가슴의 털을 노출함으로써 자신이 대단한 남성임을 과시합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남의 시선을 끄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사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인생을 즐겁게?

계획A의 또 다른 부류는 취미나 오락에 정신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쾌락이나 여행, 식도락, 여흥 등등으로 인생을 즐겁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때때로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자신의 취미에 광적인 집착을 보입니다. 여기에는, 회고 작은 공을 따라 넓은 잔디밭을 열심히 누비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는, 좋은 경관(景觀)을 찾아 비행기나 버스를 분주히 오르락 내리락하며 길이가 수 마일이 넘을 정도의 필름에다 사진을 닥치는대로 찍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슬라이드나 사진을 보여주며 듣는 사람들이 지루할 정도로 자신의 거창한 공적을 철세없이 떠벌리는 사람들도 포함되며, 자신의 배가 자신의 신(神)인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E. 스탠리. 존스(E. Stanley Jones)는 잊을 수 없었던 한 가지 실패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배로 여행하는 중에 매우 똥똥한 두 사람이 자신들에게 초특급 서비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사 시중을 드는 남자들을 몹시 나무라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차례차례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그 사이를 못참아서 곧 굶어죽지나 않을까 염려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먹기 위

해 사는 것처럼 보였으며,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식사 시간이 아닐 때는 그저 멍하게 앉아 밖이나 쳐다보면서 다음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에도 그들은 그렇게 멍하게 앉아 있다가, 그들 중 한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기발한 것이 번득였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벽난로 선반으로 다가가 꽃병들을 집어 들고 그 속을 들여다본 후,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듯이 자기 아내한테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부 빈 병이더군!」 저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의 말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병들은 비어 있었지만, 빈 것은 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머리 속도 역시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갑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 있었지만 자신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또한 머리가 둔한 인간들의 목록에 TV 앞에서만 사는 사람들도 첨가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왜 TV를 “얼간이 튜브”라고 부를까요? 거기에는 몽상의 세계가 펼쳐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생각하고 별장같은 곳에 살며, 번득이는 개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접는 포장이 달린 멋진 자동차에 멋있는 품으로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있어서 TV만큼 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음란

하며 형편없는 섹스 풍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범죄, 폭력, 부부 바뀔치기, 매춘, 동성연애, 근친상간, 이혼, 간음, 변태성욕 등등을 가정의 안방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도 괜찮다는 식으로 암시를 줍니다. TV는 인간의 추한 면들을 자꾸 방영함으로써 오히려 가정에 심각한 도덕적 부패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TV가 아동들의 주의집중 시간을 짧게 하며, 쓰기, 읽기 언어능력을 약화시켜서 결국 학문적인 성과를 저해한다고 보고했습니다.

TV는 또한 주일학교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교회의 집회를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자신의 시간을 대부분 TV나 전자오락 등에 소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

계획 A에 속한 부류 중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 보고 싶은 것은 가정을 모든 것의 우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곧 모성애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가정을 인생의 주요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는 열심을 품은 제자의 결혼식 자리에서 그(녀)에게 작별인사를 하셔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그(녀)는 웅대한 비전을 가졌으며, 주님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치를 것을 꿈꾸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세상의 잔디밭과 아름다운 커튼과 (아기) 기저귀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급강하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애 중에 있는 여성은 선교지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하고 나면 좀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자녀의 안정된 생활에 대한 관심은 다른 야망을 뒷전으로 몰려나게 만듭니다. 때로는 영적인 남성(여성)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아내(남편)에 의해 저지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스필전(Spurgeon)은 어느 날 밤, 그가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엑세터 홀로 그의 약혼녀를 데리고 갔습니다. 택시가 그 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온통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수잔 탐슨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이야기해 놓고 예전처럼 군중 사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이 끝난 후 안으로 들어가 그녀를 찾아보았으나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더니 그녀는 몹시 토라져 있었으며 다시는 만나지도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펠전이 계속 만나 달라고 간청하므로 그녀는 마지 못해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먼저 사과한 후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나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종이 되길 첫째로 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의 첫째이며, 주님을 위한 일도 최우선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 기꺼이 나의 두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해질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나의 첫째 임무는 주님의 일입니다.”

나중에 스펠전의 부인은 그 날 밤 남편의 첫째 자리를 차지하신 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술회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두 번째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기르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 그리고 30명의 며느리를 거느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명성을 얻기에 충분한 것같군요. 아마도 그는, 수많은 자식들이 자신의 실패와 부족한 수입을 다소나마 보상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결정이 자녀들을 중심으로 내려질 때 그것은 잘못입니다. 가족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선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이동 명령이 내려졌을 때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엄중한 의무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부자가 되는 데에, 재물 축적에, 직업 또는 사업의 성공에, 명예에, 식도락에, 쾌락에, 여행에, 오락과 여흥에 혹은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짧음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점과, 우리는 청지기이며,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들의 필요에 대한 참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셨으며, 얼마 안있으면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것을 결산할 날이 있음을 생각할 때,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계획 A를 채택하는 것은 타이태닉호의 갑판 위에 있는 의자들을 정돈하는 것과 같으며(타이태닉호는 대서양을 지나다가

큰 빙산을 만나 침몰했음 — 역자 주), 불타는 집 안에서 그림을 정돈하는 것과 같으며, 날아가는 대신 기어가는 것과 같으며, 왕 대신 노예가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조오지 애플리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 S. 존스는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침대 주위에 모여 그의 마지막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로부터 듣게 된 엄숙한 말은 「장미나무를 다치지 마라!」 였습니다. 그는 일생을 장미나무 세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삶은 아니었지만 진정으로 가치있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의 자녀가 일생을 투자하기엔 너무나 사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하한 형태이든지 계획 A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은, 마치 왕이 되어야만 할 사람이 아주 시시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 B : 세상의 흐름 따라

삶의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두 번째의 반응은 무엇이 닥쳐오든지 그대로 받아들여려는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저항이 가장 적은 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는 조류를 따라 흘러가며 단호한 행동은 결코 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조절장치

(Thermostat) 역할을 하기보다 온도계의 역할을 더 잘 합니다. 즉, 주위 환경의 온도를 지시해 주기는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결코 에이미 칼마이클처럼 기도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물 속에 깊이 가라앉은 진흙처럼 되게 마옵시고 하나님의 불길을 일으키는 연료가 되게 하옵소서.”

그는 말 그대로 진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도 그저 진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싸워서 영웅이 되기보다는 채찍으로 물리는 말 못하는 짐승이 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는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며, 세상을 떠났을 땐 이 세상에 전혀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야망을 결코 가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장기간 또는 단기간의 목표를 세우도록 권면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타성을 극복할 만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힘을 얻기 위해 식량을 사며, 식량을 사기 위해 돈을 벌며,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며, 일하기 위해 힘을 얻으며, 힘을 얻기 위해 식량을 사며... 이런 식으로 귀중한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허비해 버립니다.

주우웬(Jowett)은 수많은 어려움을 피할 양으로 무의

미한 생을 보내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이 단지 인생의 역경을 피해 가려는 것에만 있다면 그에 대한 처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야망을 사방으로 흩날려 버리게 하고 옹지의 날개를 모두 잘라버린 채 그저 미미한 인생을 근면하게 살아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사실은 이것이 바로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안일하게, 환난이나 고통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상봉하면서 살아가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최저로 격하시켜 인생의 진로를 아메바처럼 통과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이 것처럼 가련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모두가 동감하실 줄 믿습니다.

계획 C : 주님께 영광돌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 가능성은 자신의 모든 지배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합당한 삶입니다. 이러한 것을 봉헌 또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로 우리의 생을 쓰시도록 넘겨드리는 것이요, 우리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며, 주

님과 복음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잃는 것이며, 우리의 심령과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최초의 포기

주님께 자신을 포기하는 일은 보통 “위기 경험(a crisis experience)”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위기 경험”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해주신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만 한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지기 시작하는 특정한 시간을 뜻합니다. 그는 아마도 갈등의 기간을 가질지도 모르지만 이내 자신의 일생을 자기가 꼭 껴안는 것을 단념하고 그것을 희생의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것처럼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필연적이며 옳고 합당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우리가 변화함을 받는 그 순간에 해야 합니다. 다소의 사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있다가 자신의 일생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 드리겠다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베티 스코트(Betty Scott)는 성경학교에 다닐 때 이

위기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의 면지(面紙)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세운 목적과 계획, 모든 욕망과 기대와 야망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일생 동안 따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생명과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또한 저의 모든 우정과 사랑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제 마음의 두 번째 위치에 놓으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저를 채우시고 인치소서. 저의 생애를 향하신 주님의 모든 뜻을 어떠한 값을 치루더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소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빌 1 : 21)”

나중에 그녀는 존 스탬과 결혼하여 선교사로서 함께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존과 베티 스탬의 승리(The Triumph of John and Betty Stam)”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낙농가문의 일원이었던 윌리엄 보던(William Borden)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 일생에 관해서 손을 떼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마음의 보좌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저를 바꾸시고 깨끗케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대해 감사를 드리나이다.”

설교의 왕자, 찰스 해던 스펀전(Charles haddon Spurgeon)은 자신의 헌신의 순간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나의 구주께 굴복했던 그 날 저는 저의 몸과 혼과 영, 재능, 능력, 눈, 귀, 손, 발, 감정, 판단, 나라는 인간 전체를,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수년 후에 A. T. 피어슨은 그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최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에쿠아도르에서 순교한 다섯 명 중의 한 사람인 짐 엘리오(Jim Elliot)는 마치 자신의 앞날을 예언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일 저의 생명의 피를 아낀다면, 주님의 본을 따라 희생제물처럼 그것을 쏟아붓기를 주저한다면, 부식될처럼 굳은 하나님의 얼굴이 제 앞을 가로막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제 목숨과 피를 취하시고 아버지의 힘씨는 불로 사르소서. 그것은 제 것이 아니오니 마음대로 하소서. 제 목숨을 세상을 위한 봉헌의 제물로 쏟아붓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제단에서 흘러지는 피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신의 위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마땅히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이 한 데 얽히고 꼬여져 만들어진 강하고 굵은 밧줄이 우리를 희생의 제단에 잡아매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견고하게, 동요되지 않게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게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열망입니다”(F. B. 마이어).

만일 우리가 그것을 억제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19세기의 경건한 아일랜드 여성이었던 파우어스코트 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망서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미적지근하기보다는 차라리 냉담한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고작해야 두 렵돈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모든 것은 하늘, 땅, 영원, 그리고 주님 자신입니다.”

로버트 레이드로(Robert Laidlaw)는 뉴질랜드의 오크랜드에 큰 백화점을 경영하고있으며 또한 널리 알려진

“그 이유(The Reason Why)”란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원한 영혼을 하나님께 잘 의탁하면서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목숨은 잘 의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시도록 주님을 과감히 의지하지만 주님께서 현재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함에 있어서는 대단히 망서립니다.

한 학생이 무릎을 꿇고 전적인 헌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고통 속에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방의 친구가 그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지? 너는 축복을 받는 것이 그렇게도 두렵니?”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곧 하늘의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를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지배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말경에 미해군은 전투기들이 항공모함 위에 착륙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지의 보도에 따르면 “비행기가 갑판 위로 내려올 때는 컴퓨터가 갑판의 움직임에 따라 비행기의 진로를 자동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조종사는 안전한 착륙을 위해 모든 조종장치에서 손을 떼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며 비행기가 옆으로 기울든지 비행기의 몸체가 떨어지지 일체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컴퓨터가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도록 조종사는 그 컴퓨터를 믿고 모든 조종장치에서 손을 떼어야만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훨씬 월등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미쁘신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리한다면 그것이 곧 첫걸음이 됩니다.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반쯤이나, 쓰다 남긴 부스러기나 혹은 일부를 모든 것인 양 꾸미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우리는 감동적인 일관성과 단순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그 처음 사랑으로부터 쉽게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저자 미상).



계속되는 재헌신

하지만 그 위기에는 반드시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단 한 번 헌신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며 우리는 매일 매일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희생의 제단 위에 올려 놓았다가 내일이 되면 그 가련한 것이 제단을 기어내려올 길을 찾는 모습을 혐오감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나 제인 그래니스(Anna Jane Grannis)는 매일의 헌신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

나는 내 마음의 자아가 깨끗해 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중한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가구를 설치하시고
내 마음을 그분의 집으로 만드시도록.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줄 나는 알기에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에
그 비밀의 방으로 들어간답니다.
거기에서 나의 뜻을 그분께 말기면
은혜롭게도 그분은 언제나 그것을 가져가시고
그 대신 그분 자신의 것으로 나를 채우십니다.
이제 나는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었답니다.

무슨 일이나 할 준비가 되었답니다.
이것이 나의 주님께서 나의 관심, 나의 악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뜻을 서로 교환하려고
매일 새벽에 만나기에.

해롤드 와일디쉬(Harold Wildish)는 그의 책 중에서
우리의 헌신을 어떻게 매일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다음
과 같이 훌륭히 밝히고 있습니다 :

“당신이 죄의 모든 짐을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사역 위에서 편히 쉬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삶과 섬김의 모든 짐도 맡기고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현재의 역사 위에서 편히 쉬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찬양하며 쉬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자신을 포기
하고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하루를 관리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밝혀주시며, 책
망하시며, 가르치시며,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당신
과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대하면서 기쁘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루를 갖도록 습관을 들이십시오. 보이는 것
이나 느낌이 어떠한지 상관말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사
실로 믿으십시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려는 노력
을 그치고 오직 성령을 자신의 지배자로 믿고 순종하십
시오. 그리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지요? 만일 내가 이미 헌신을 하고 매일 매일 내 자신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엔 뭐죠?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앉아 콜라나 마시면서 무슨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반대지요. 당신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직업과 지역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효과적인 기도생활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섬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그분을 위해 전진해 나아감에 따라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배나 자전거는 움직이기 시작해야만 당신이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그분을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만 당신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청사진(靑寫眞)의 전부를 당신에게 한꺼번에 보여 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생의 갈림길에 다가감에 따라 그분도 당신을 인도하려고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당신이 생(生)의 종점에 섰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나의 모

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을 뒤돌아 보면 그분이 당신의 희생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으며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당신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큰 다리 중의 하나를 설계한 어느 건축기사는 그 다리가 세워지는 동안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오랜 기간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 동안 다리가 다 완성되어 개통식을 하는 날이 왔을 때 그 건축기사는 구급차에 실려 강둑 위로 가 들것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성된 다리를 만족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했던 꼭 그대로 되었군!”

그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졌던 자신의 계획과 우리의 실제 삶을 비교해 보시면서 “계획했던 꼭 그대로 되었군!”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당신과 저의 목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매일 매일 주님을 위해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 말이 곧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도 갖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계속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배권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문제밖에 갖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자기를 강제적으로 당신의 삶의 첫째 자리에 두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자신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서는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주님을 따르는 축복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어떤 것도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단의 시간

지금 당신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바로 지금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과 구주(Lord and Saviour)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희망도 다 포기하고 오직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을 당신의 유일한 천국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당신이 만일 이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구원을 위해서는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넘겨드렸지만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당신의 삶을 아직

주님께 넘겨 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는 아직도 그분을 위해 제한을 받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땅 위의 당신의 삶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 당신은 아직도 자신의 지배권을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주님께 온전히 굴복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 그것을 표현한 말을 찾고 있다면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을 사용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삭 왓츠(Isaac Watts)가 작곡한 “십자가를 생각할 때(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란 찬송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통일찬송 147장)

그는 다른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Alas, And Did My Savior Bleed)”라는 찬송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박히셨으니
웬 말인가 웬 은혜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박힐 때 그 해도 빛 잃고
그 밝던 빛 가리어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값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통일찬송 141장)

안나 B. 워너(Anna B. Warner)가 작곡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네(Jesus Loves me)”란 어린이 찬송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셔요!
주님은 모든 길에 동행하시죠.
저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셨으니
이제부터 주님만을 위해 살래요.

저는 누가 이 사랑스런 구절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보
다 더 나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함

니다.

오,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피흘리신 손과 발,
나를 위한 당신의 그 희생,
그 상처를 보오니
나도 이 목숨 드리리이다,
당신 위해 이 몸 제물 삼으리이다.

제임스 G. 스몰(James G. Small)은 다음과 같이 기록
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어
날 볼든 주의 사랑은 꿀을 자 아주 없네

주 예수 나를 구하려 그 귀한 피 흘리셨네
그 몸과 그 생명 날 위해 바치셨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가 주셨으니
내 몸과 생명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통일찬송 98장)

프랜시스 R. 헤버걸(Frances R. Havergal)은 다음과

같이 기억해둘 만한 구절을 썼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지여,
나의 사랑을 취하소서
그 보물 창고를 당신에게 드리나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취하소서
나는 영원히 오직 당신만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이 되겠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헌신의 심령에 사로잡힌 베티 다스
반드(Betty Daasvand)의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끝내 나를 위해 다 이루셨네.
끝내 나를 위해 다 이루셨네.
어찌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온전히 그분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으리오.
끝내 나를 위해 다 이루셨기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또 그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지 못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그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남겨두
는 일이나 뒤로 물러가는 일이 없다면 후회함도 결코 없
을 것입니다.

나는 편한 걸음으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유혹과 쾌락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조용한 곳에서
나는 나의 주인을 얼굴과 얼굴로 직접 만났습니다.

나의 지위, 나의 계급, 나의 재물은
다 육체를 위해 사용되었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생들의 미친 경주에서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주인의 얼굴을 대할 때까지.

나는 성들을 짓고 높이 높이 올렸습니다.
그 탑들이 저 푸른 하늘을 찌를 때까지.
나는 또 철탕로 다스리기로 맹세했습니다.
나의 주인의 얼굴을 대할 때까지.

나는 그분을 만났고 알았습니다.
나의 눈이 슬픔으로 가득찬 그분의 눈과
마주했을 때
나의 얼굴은 그만 붉어져버렸습니다.
망서리고 비틀거리다가 나는 그 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때 나의 성들은 무너져 내렸고

이윽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사라져 버린 바로 그곳에는

오직 주님의 얼굴만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때 크게 소리쳤습니다.

오, 저를 당신의 상한 발자취를 따라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소서.

내 마음과 생각은 이제 온통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해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 이래로 줄곧 그 거룩한 처소에서

나의 주인과 나는 얼굴을 마주보며 서 있습니다.

캡틴 에디쓰 오버롤(Captain Edith Overall)

그리스도인의 각종 및 찬기

만일 나에게 동전 한 푼만 있다면
H.오만 카나 93면 1,400원

헤벳나리
그리스도나 로이 176면 3,000원

사제리의 시애틀
찰스 R.다인 261면 4,000원

시베리아의 불꽃
아놀드 로제 112면 2,600원

랍비어, 어디 계시나니까?
알리안 윌리엄스 104면 1,600원

북치는 소년반
H.L. 로스발리 97면 1,700원

작은 아인
로베르스 이틸리드 173면 4,000원

아이스사이드 그 상애
E. 보라 300면 2,400원

나의 아르메니아 나의 하나님!
도나타 데이치 162면 2,000원

내 일흔에 헛된 비치니
리안리 24면 500원

윌리엄 보만의 생애
하워드 테일러 221면 4,300원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히브리인들
루디아 보스너 232면 3,000원

숨은 보배
루셀리 170면 2,600원

변함의 강도
찰스 루게워 24면 1,100원

시베리아로부터의 탈출
게르헨르트 한 36면 1,700원

주님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
리커트 발발리드 128면 2,600원

자유를 위한 투쟁
카린 맥켄지 49면 900원

어머니의 등지
김광주 144면 3,300원

도망자-나사렛 예수를 만난 사람들
파트라시아 11 St. 오한 192면 4,000원

그리스도를 만난 엘리
N.L. 실로프 아스타코프 101면 1,600원

죽에서 부활 자아내는 하나님
구르다 데이 아메스 221면 3,300원

어린이들과 함께 보는 책

아름다운 나라로 가는 길
앤나 포터 라이더 120면 1,800원

또다른 소년
J.C. 볼러우드 66면 1,400원

눈보다 희게
O.F. 윌드 144면 1,700원

어린이 천로역정(상)
조 변연 272면 6,000원

어린이 천로역정(하)
조 변연 132면 2,600원

크게 생긴 친구(만화)
이승희 48면 700원

빌리드의 보고서(만화)
이승희 48면 700원

아침(만화)
이승희 29면 700원

두 형제(만화)
이승희 48면 700원

종교에서 생명으로(만화)-오한 웨슬레의 생애
이광희 128면 2,500원

강 저택에서 온 죄수
지오프리 T. 홀 144면 2,000원

어린이를 위한 십자가 이야기
에디모트 스기허트 39면 1,800원

예수님이 좋아요
핀잡부 160면 3,500원

만화로 보는 조 변연의 천로역정(상)
조 변연 272면 6,000원

만화로 보는 조 변연의 천로역정(하)
조 변연 132면 2,600원

신앙 생활 지침서

신앙 생활 지침서

인간의 눈을 통해 본 병고치는 기적 이더 C. 홀 93원 300원	영광의 집-영막(십새 사진 31편) J. 루프 164원 3,000원
그리스도인과 교단 칼루트드 할로드 249원 500원	아버지의 말씀은 전리나이다 윌리엄 맥도날드 114원 2,500원
그리스도인과 선교 칼 노트 249원 440원 500원	성경해석의 원칙 23가지 에드윈 칸들 990원 5,500원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레나드 윌리엄스 334원 600원	경쟁에서 말하는 정로직 윌리엄 스투라우크 334원 6,200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폴 리틀 249원 500원	성경에서 말하는 겸사 윌리엄 스투라우크 244원 5,000원
믿는 자들의 귀 존 볼링 149원 300원	성경자와 그의 선교 P. 길스 484원 10,500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새로운 것인가 N.L. 프레이저 249원 84원 1,130원	그리스도인의 죄상의 의무-예배 P. 길스 249원 4,000원
오늘날의 방언 데이비드 톨 489원 1,000원	주님의 만민 A.P. 길스 249원 4,000원
하나님께 돌아오라 윌리엄 맥도날드 114원 1,100원	네대주주의 바른 이해 폴스 O. 리어 249원 4,800원
그리스도인의 소망 폴링 윌리엄스 249원 1,100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노르만 크루프 외 283원 5,500원
그리스도인의 내면생활 A.L. 스퀴퍼드 249원 1,400원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H. 모리스 329원 6,000원
그리스도인의 성장지침 윌리엄 맥도날드 394원 1,400원	핵심 선교 노트 윌리엄 로저스 449원 11,000원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 윌리엄 맥도날드 249원 1,600원	나그네의 소망 이훈경 309원 4,300원
그리스도인의 근야생활 존 윌리엄 브라운 129원 1,500원	여기리와 우렁이(생명의 빛 컬럼) 윌리엄 140원 3,800원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데이비드 톨 249원 1,400원	뜻의 땅과 갈오리니 폴스 스퀴퍼드 159원 2,200원
비율과의 관계 H.S. 에이리리비드 239원 1,400원	세계 선교-전역전 L.E. 맥스웰 249원 5,500원
베드로의 사역과 증거 R.E. 할로우 249원 1,400원	엘리아, 엘리사 A.D. 탐말, J.E. 트렐링 144원 2,800원
말씀 증거와 다섯 계사 존 리치 129원 3,200원	이스라엘과 유대 영들 윌리엄 로저스 129원 2,500원
말씀의 성미 존 리치 180원 2,000원	신라의 영과 미혹의 영 박도형 49원 1,700원
예루살렘 기도의까지 존 리치 180원 2,000원	구원의 영의성과 난해구출 해설 박종환 88원 1,700원
주 예수님의 제자 존 리치 128원 1,500원	영원을 개산하는 십 윌리엄 맥도날드 129원 2,500원
말씀의 근본지침들 존 리치 129원 2,200원	충된 제자의 길 윌리엄 맥도날드 749원 1,300원
성령님의 역사 T. 에네스트 249원 1,800원	매일의 묵상 윌리엄 맥도날드 448원 3,500원
신약에 갈수록 더 교리적인 비밀들 T. 에네스트 249원 3,000원	성경충만한 가정 퍼피트 영 141원 2,800원
우리는 하나님을 갈 수 있는가? R.E. 할로우 129원 1,500원	갈복과 가정 A.J. 히긴스 159원 2,200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 나단 J. 스투트 249원 3,800원	위대한 명령-거룩하라 윌리엄 맥도날드 340원 3,200원
제사장 회복 C.W. 슐리퍼 249원 4,200원	정치 되어 줘 R.E. 할로우 123원 3,500원
거짓 선지자 빌립과 전도자 요나 W.C. 퍼킨스 178원 4,300원	그리스도인의 개인전도 윌리엄 맥도날드 398원 2,300원
말씀이 육신 되어 W.프린 192원 4,5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문개집 윌리엄 스투라우크 349원 1,700원

영광의 집-영막(십새 사진 31편) J. 루프 164원 3,000원
아버지의 말씀은 전리나이다 윌리엄 맥도날드 114원 2,500원
성경해석의 원칙 23가지 에드윈 칸들 990원 5,500원
경쟁에서 말하는 정로직 윌리엄 스투라우크 334원 6,200원
성경에서 말하는 겸사 윌리엄 스투라우크 244원 5,000원
성경자와 그의 선교 P. 길스 484원 10,500원
그리스도인의 죄상의 의무-예배 P. 길스 249원 4,000원
주님의 만민 A.P. 길스 249원 4,000원
네대주주의 바른 이해 폴스 O. 리어 249원 4,800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노르만 크루프 외 283원 5,500원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윌리엄 H. 모리스 329원 6,000원
핵심 선교 노트 윌리엄 로저스 449원 11,000원
나그네의 소망 이훈경 309원 4,300원
여기리와 우렁이(생명의 빛 컬럼) 윌리엄 140원 3,800원
뜻의 땅과 갈오리니 폴스 스퀴퍼드 159원 2,200원
세계 선교-전역전 L.E. 맥스웰 249원 5,500원
엘리아, 엘리사 A.D. 탐말, J.E. 트렐링 144원 2,800원
이스라엘과 유대 영들 윌리엄 로저스 129원 2,500원
신라의 영과 미혹의 영 박도형 49원 1,700원
구원의 영의성과 난해구출 해설 박종환 88원 1,700원
영원을 개산하는 십 윌리엄 맥도날드 129원 2,500원
충된 제자의 길 윌리엄 맥도날드 749원 1,300원
매일의 묵상 윌리엄 맥도날드 448원 3,500원
성경충만한 가정 퍼피트 영 141원 2,800원
갈복과 가정 A.J. 히긴스 159원 2,200원
위대한 명령-거룩하라 윌리엄 맥도날드 340원 3,200원
정치 되어 줘 R.E. 할로우 123원 3,500원
그리스도인의 개인전도 윌리엄 맥도날드 398원 2,3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문개집 윌리엄 스투라우크 349원 1,700원

인상선물자점서

이웃 및 불경교제

인상 카드-교회 진리
판정부 52장 1,000원

인상 카드-제가의 삶
판정부 52장 1,000원

인상 카드-전도의 삶
판정부 52장 1,000원

인상 카드-구원의 진리(1)
판정부 52장 1,000원

인상 카드-구원의 진리(2)
판정부 52장 1,000원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C.H. 매킨토쉬 170면/4,000원

여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
피터 웨 96면 1,500원

우리 천국 경기가 되게 하소서
최기환 170면 4,000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홀스 스티리 240면 5,500원

매일 성경 큐타-사사기, 룻기
최기환 208면 4,000원

매일 성경 큐타-사도행전, 학기
최기환 208면 4,000원

매일 성경 큐타-히백국, 요한일서, 느헤미야
최기환 224면 4,000원

매일 성경 큐타-갈라디아서, 아모스, 대실로니가전후서
최기환 208면 4,000원

매일 성경 큐타-고린도전후서
최기환 272면 8,000원

매일 성경 큐타-누가복음
최기환 336면 9,0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일문편
O.J. 김슨 128면 3,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기초편
O.J. 김슨 128면 3,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성장편
O.J. 김슨 128면 3,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완성편
O.J. 김슨 128면 3,5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일대일(교사용)
O.J. 김슨 128면 2,5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일대일(목회용)
O.J. 김슨 128면 1,0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교회생활
O.J. 김슨 128면 3,5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제자훈련
O.J. 김슨 128면 3,500원

그리스도인의 분야별 훈련-결혼생활
O.J. 김슨 128면 2,500원

그리스도인의 4단계훈련 사용 설명서
O.J. 김슨 128면 1,000원

B. C. T. 독심훈련책리드-미태복음
정본은 100면 2,500원

성경에서 말하는 짐사-문제집
알렉산더 스트리우크 80면 1,700원

단 한 번 뿐인 인생

발행일 : 1988년 5월 30일 1판 1쇄 발행
2001년 10월 20일 1판 9쇄 발행

지은이 : 윌리엄 맥도날드

옮긴이 : 김 병 희

발행인 : 이 치 일 (E. Ritchie)

발행소 : 전도출판사(등록 98-43호)

연락처 :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233-4

전 화 : (031) 914-2732

팩 스 : (031) 917-4520

E-Mail : kjundo@korea.com

정 가 : 1,500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ISBN : 89-7531-003-5 03230